

# 교황 선출 관련 전례 지침과 자료

## I. 교황 선출 기간 동안

(2025년 5월 7일부터)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적인 애도 기간이 끝나고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의 선거가 2025년 5월 7일부터 시작되면, 교회 공동체는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성찬례를 적절하게 거행한다. 이 성찬례에는 되도록 많은 신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사 고유 기도문

『로마 미사 경본』의 기원 미사 ‘4. 교황이나 주교의 선출’

### 감사 기도

『로마 미사 경본』의 ‘기원 미사 감사 기도 I. 일치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

### 독서와 복음

『미사 독서 IV』 ‘3. 교황이나 주교의 선출’

대축일과 부활 시기 주일에는 그날의 전례문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의 보편 지향 기도와 시간 전례의 청원 기도에서는 아래 제시된 기도문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 보편 지향 기도 예문

### 사제의 권고

-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온 인류와 교회를 위하여 지혜롭고 거룩한 교황을 뽑아 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 지향

1.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지혜롭고 자애로운 교황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화해시키는 새 교황을 뽑을 수 있게  
추기경단에 지혜와 화합의 은총을 내려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3. 온갖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새 교황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4. 우리와 온 교회 공동체가 새 교황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도록 기도합니다.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사제의 기도

- ✚ 자애로우신 하느님,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상과 교회에 지혜로운 교황을 보내 주시어  
저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미사 전후에 아래와 같이 ‘교황 선출을 위한 기도’를 바칠 수 있다.

### 교황 선출을 위한 기도

- 오소서 창조주님 성령께서 찾아오사  
창조하신 마음속에 천상은총 채우소서.
- 보호자신 성령님은 지존하신 주님선물  
사랑의샘 불과사랑 우리영혼 축성기름
- 약속되신 성령님은 하느님의 손가락  
일곱은혜 베푸시고 말씀능력 채우시네.
- 느낌생각 비추시고 마음속에 사랑부어  
나약하온 저희육신 튼튼하게 고치소서.
- 원수들을 멀리쫓아 참된평화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받아 모든해악 피하리다.
- ◎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을 알리시니  
아버지와 아드님의 성령님을 믿나이다.

### ✚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를 다스리고 지켜 주시니  
주님의 종들에게 지혜와 진리와 평화의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온 힘을 다하여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교황 선출을 위한 기원 미사

### 입당송

1사무 2,35 참조

내가 믿음직한 사제를 세우리니, 그는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리라. 내가 믿음직한 집안을 그에게 일으켜 주고, 그가 내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리라.

### 본기도

하느님,

영원한 목자로서 끊임없이 양 떼를 돌보며 다스리시니  
교회에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어 뛰어난 성덕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언제나 깨어 저희를 돌보는 훌륭한 목자를 보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 예물 기도

주님, 저희가 정성껏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보시고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뜻에 맞는 목자가 교회를 이끌어  
저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주…….

### 영성체송

요한 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으니,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외아드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구원의 성사로 받아 모시고 비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에게 훌륭한 목자를 보내시어  
그가 주님의 양 떼를 덕행으로 가르치고  
저희의 정신을 복음의 진리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우리 주…….

## 교황 선출을 위한 기원 미사의 독서와 복음

### 제1독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1-3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냇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화답송

시편 89(88),4-5,21-22,25와 27(◎ 2ㄱ 참조)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또는

◎ 알렐루야.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 나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노라.

내 손이 그를 붙잡아 주고

내 팔도 그를 굳세게 하리라. ◎

- 내 진실 내 자애가 그와 함께 있으니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이 들리리라.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

## 제2독서

### 1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11-16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2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에게서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5,1-10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럽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복음

### 1

복음 환호송

요한 10,1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 알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9-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0,1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 알렐루야.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1ㄷ,17-23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II. 새 교황이 선출된 후에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새 교황을 위한 성찬례를 적절하게 거행한다. 이 성찬례에는 되도록 많은 신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사 고유 기도문

『로마 미사 경본』의 기원 미사 ‘2. 교황’

### 감사 기도

『로마 미사 경본』의 ‘기원 미사 감사 기도 I. 일치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

모든 감사 기도에 새 교황의 이름을 말한다.

### 독서와 복음

『미사 독서 III』 ‘목자 공통-부활 시기’

대축일과 부활 시기 주일에는 그날의 전례문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의 보편 지향 기도와 시간 전례의 청원 기도에서는 아래 제시된 기도문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 보편 지향 기도 예문

### 사제의 권고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느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청원을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1. 전능하신 하느님, 새로 선출된 교황 **아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일치와 사랑, 평화를 위한 사도직을 시작하는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언제나 교회를 돌보시는 하느님, 교황 **아무**를 뽑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도하오니,  
그가 말과 모범으로 맡겨진 백성을 충실히 이끌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3. 일치를 이루시는 하느님, 새로 선출된 교황 **아무**와 모든 주교들이 하나 되어,  
기쁨과 평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 가도록 도와주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4. 평화의 하느님, 새 교황 **아무**가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고,  
민족들 사이에서 화해를,  
세상에서 평화와 일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사제의 기도

✚ 주님,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자비로이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적당한 날까지 미사 전후에 『가톨릭 기도서』의 ‘교황이나 주교를 위한 기도’를 바칠 수 있다.

## 교황이나 주교를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들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일꾼 아무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많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새 교황을 위한 기원 미사

### 입당송

마태 16,18-19 참조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리라.

### 본기도

하느님, 복된 베드로를 사도들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하느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섭리하셨으니 베드로의 후계자인  
저희 교황 아무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신앙의 일치와 친교를 드러내는  
근원이며 토대로서 하느님 백성을 이끌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

### 예물 기도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어  
목자로 세우신 저희 교황 아무를 지켜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

### 영성체송

요한 21,15,17 참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  
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 잔치에 참여하고 간절히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주님의 교회를 일치와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목자의 직무를 맡기신 주님의 종 아무를  
양 떼와 함께 언제나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우리 주 .....

## 새 교황을 위한 기원 미사의 독서와 복음

### 제1독서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0,17-18 ㄱ,28-32,36

그 무렵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 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꺾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 제2독서

### 1

〈우리는 저마다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2,3-13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2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5,1-4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복음

### 1

#### 복음 환호송

마르 1,1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 ◎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19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2

###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알렐루야.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5-17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